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②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③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⑤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정답: ①

* 주먹도끼가 사용된던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 전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뗀석기인 주먹도끼는 아프리카를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종래에는 유럽과 서아시아지역은 주먹도끼를 주로 썼으며 동아시아지역은 자갈돌을 깨뜨려 만든 찍개를 주로 썼다고 구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아슐리안공작의 주먹도끼가 다수 발견(1978, 연천 전곡리 첫 출토)되어 주먹도끼문화의 범위를 한정하는 종래의 구분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돌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다가, 점차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 뗀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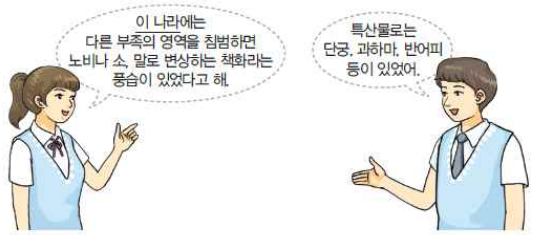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짐승과 물고기를 잡아먹었으며, 식물의 열매나 뿌리도 채취하여 먹었다. 또,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동굴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특히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에는 기둥 자리, 담 자리 및 불 땐 자리가 남아 있어 불을 사용하여 난방과 음식을 익혀 먹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집터의 규모는 작은 것은 3, 4명, 큰 것은 10명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②, ⑤ 빗살무늬 토기를 주로 사용한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뼈바늘로 옷을 지어 입는 원시적 수공업이 시작되었다.

③, ④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발생하고 지배자(군장)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등장하였다. 한반도에서는 처음에 만주.요녕 지역에서 비파형(요녕식) 동검을 수입해 사용하다가, 후기에는(초기 철기) 기술이 발달하며 독자적으로 세형동검을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증거가 바로 거푸집이다.

2.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②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③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④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법을 만들었다.

정답: ④

* 초기국가 동예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국왕이 없고,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폐쇄적인 씨족 사회의 전통이 매우 강하여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①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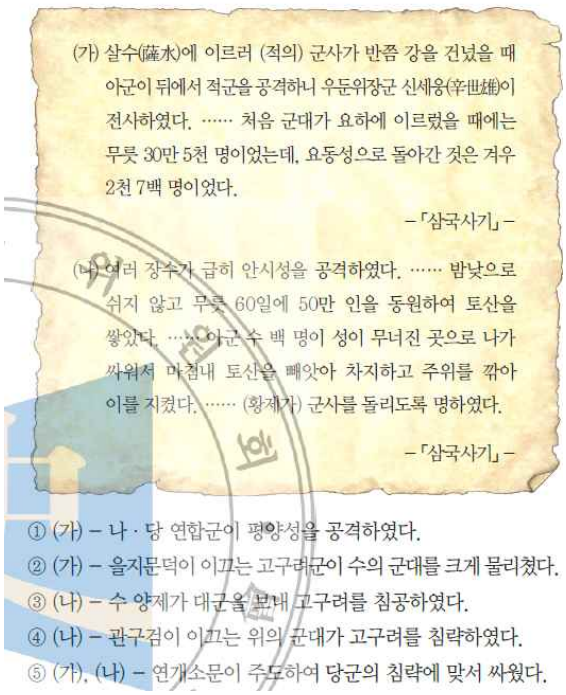
② 고구려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③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⑤ 고조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8개 조항(8조법)이 있었는데, 다음의 3개 조항만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갚는다."
- 도둑질한 자는 잡아다 종으로 삼는다. 용서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이 법을 보면, 고조선 사회는 사람들의 생명(노동력)과 재산을 중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3. (가), (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살수(薩水)에 이르러 (적의)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아군이 뒤에서 적군을 공격하니 우둔위장군 신세웅(辛世雄)이 전사하였다. …… 처음 군대가 요하에 이르렀을 때에는 무릇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간 것은 겨우 2천 7백 명이었다.

–「삼국사기」–

(나) 여러 장수가 급히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 밤낮으로 쉬지 않고 무릇 60일에 50만 인을 동원하여 토산을 쌓았다. …… 아군 수 백 명이 성이 무너진 곳으로 나가 싸워서 마침내 토산을 빼앗아 차지하고 주위를 깎아 이를 지켰다. …… (황제가) 군사를 돌리도록 명하였다.

–「삼국사기」–

① (가) –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② (가) –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③ (나) – 수 양제가 대군을 보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④ (나) –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⑤ (가), (나) – 연개소문이 주도하여 당군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정답: ②

* 7세기 고구려와 수.당 전쟁

오랜 분열과 혼란을 거듭해 온 중국이 수에 의해 통일되었다(589). 수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는 같은 처지에 놓인 유목 민족인 돌궐과 연합하여 수에 대항하였고, 수의 침입을 미리 막고 전략상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랴오허 강을 건너 전략적 요충지인 요서 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598). 이에 수 문제가 침공해 왔으나(1차), 고구려는 이를 물리 쳤다.

612년에 수 양제는 직접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2차).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는 데 실패하고 바다를 건너 평양성 부근까지 침략한 수군 또한 참패하자, 초조해진 수 양제는 30만 명의 별동대를 투입하여 평양성을 치게 하였다.

우중문 등이 거느린 별동대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의 유도 작전에 말려들어 평양성 부근까지 진군하였다가 크게 지치고 굶주려 결국 후퇴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이 틈을 타서, 적군이 살수를 건널 때 그 주력 부대를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별동대 30만 명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겨우 2700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싸움이 유명한 살수대첩이다(612).

그 뒤에도 고구려는 수의 공격을 몇 차례 더 물리쳐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였다. 수는 무리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와 내란으로 결국 망하고 말았다.

수의 뒤를 이은 당도 고구려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았다. 고구려는 랴오허 강 주위의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고 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631~647). 이 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비롯한 여러 대신을 제거하였다(642).

당 태종은 대당강경론자인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삼아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국경의 여러 성이 함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안시성을 중심으로 민·군이 협력하여 마침내 당군을 물리쳤다(645). 이후에도 고구려는 당의 빈번한 침략을 물리쳤다.

① 연개소문 사후(665) 후계 문제의 내분과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한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평양성이 함락되며 결국 멸망하였다(668).

⑤ 고구려는 동천왕(227~248) 때인 244~245년 2년에 걸쳐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의 침입으로 인한 수도가 함락되는 위기가 있어 옥저로까지 피신하기도 하였으나 위기 밀우(동천왕을 잡으려는 관구검의 별동대 왕기의 추격 저지)와 유유(거짓 항복으로 위군 진영에 들어가 왕기 살해)의 활약으로 간신히 극복하였다.

4. 밑줄 그은 '태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태왕의 유일한 목적은 북방의 강성한 선비를 정벌하여 지금의 봉천, 직예 등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 중국 역사상 일대 효웅(梟雄)들이 모두 그 기세가 꺾이어 할 수 없이 수천 리의 토지를 고구려에 넘겨줌으로써, 태왕이 그 시호와 같이 토지를 광개(廣開)함에 이르렀다.
>
> –「조선상고사」–

①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②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③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④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았다.
⑤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진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정답: ②

* 광개토 대왕 (391~412)

태조왕에서 미천왕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게 발전하던 고구려는, 4세기 중.후반 고국원왕 때에 서북쪽의 전연(342)과 남쪽의 백제의 침략을 받아 평양성에서 국왕이 전사(371)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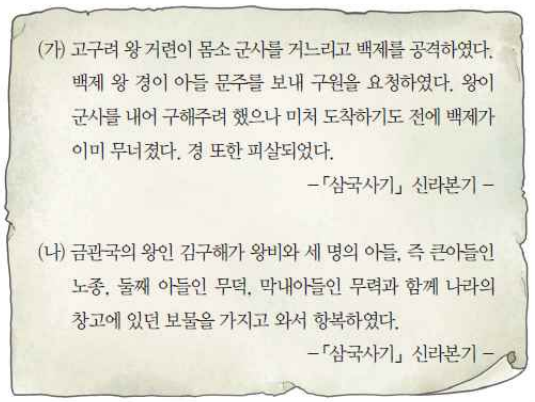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북조 전진(순도 파견)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이전의 다양한 신앙을 불교 중심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 태학을 설립(372)하여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373)하여 국가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소수림왕 때의 내정 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391~412,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 영락 사용)은 백제를 굴복시켜 한강 이북의 지역을 점령하고, 서북쪽의 선비족의 후연을 격파하여 오랜 숙원이던 요동 지방을 포함한 만주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동북쪽의 부여와 동쪽의 말갈을 굴복시켰다. 한편 노복(奴僕)이 되겠다고 맹세한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 신라에 침입해오자, 신라 내물왕의 군사원조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5만을 보내어 왜를 격퇴하였다(400). 이로써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의 발전을 도모케 하였고,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연맹을 붕괴시키는 등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이어 장수왕(413~491)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427), 뒤이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하여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④ 수의 뒤를 이은 당도 고구려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자 영류왕(618~642)은 랴오허 강 주위의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고 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631~647).

5.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고구려 왕 거련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 왕 경이 아들 문주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군사를 내어 구해주려 했으나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백제가 이미 무너졌다. 경 또한 피살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

(나) 금관국의 왕인 김구해가 왕비와 세 명의 아들, 즉 큰아들인 노종, 둘째 아들인 무덕, 막내아들인 무력과 함께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

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②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③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④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을 물리쳤다.
⑤ 신라가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정답: ①

* 475년(백제 한성 함락)~532년(금관가야의 멸망) 사이의 역사적 사실

-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에 밀리다 개로왕 때에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수도 한성을 함락당하고(475), 문주왕(475~477)이 금강 유역의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면서(475)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 가야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했으므로 그 지배력을 집중시키지 못하였고 지역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세력다툼을 위한 전장이 되었으며, 이들 나라의 압력을 받으면서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다, 결국 신라 법흥왕과 진흥왕에 의해 전기와 후기의 연맹 맹주였던 금관가야(532)와 대가야(562)가 모두 복속되었다

특히 법흥왕 때에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해왕은 신라의 진골로 편입되고, 아들인 김무력은 관산성 전투(554)에서 큰 공을 세우고, 그 아들 김서현은 진흥왕의 아우 숙흘종과 결혼하였으며, 다시 그 아들 김유신은 김춘추의 매형이자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③ 고구려는 4세기에 이르러 중원의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 활발하게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미천왕(300~331) 때에 마지막 한(漢) 군현인 낙랑군(313), 대방군(314)을 완전히 몰아 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④ 신라 문무왕은 나당전쟁에서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크게 물리쳐 군마 3만 마리와 많은 무기를 빼앗았으며(675), 당의 수군을 금강 하류 기벌포에서 격파하며(676), 대동강 이남 땅에서 당군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였다(676).

②, ⑤ 신라 진흥왕(540~576)은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여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562). 이러한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북한산, 창녕, 마운령, 황초령)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6.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② 무애가를 만들어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③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④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⑤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여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정답: ②

* 원효(617~686)

원효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즉 계(戒: 불교 계율)를 잃어 설총을 낳은 이후로는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자신을 소성거사라 하며 속인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광대들이 큰 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무애가(無碍歌)를 지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 신앙)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또한 원효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대승기신론서, 금강삼매경론 저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 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화쟁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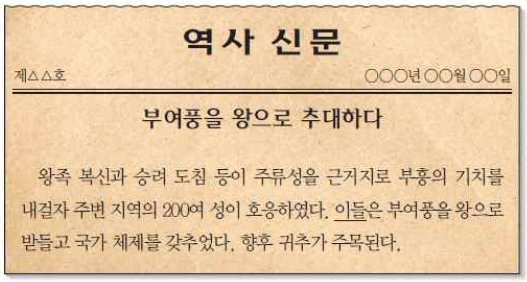
① 선덕여왕 때 대국통인 자장(590~658)은 주변 9개 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을 건의했다(643). 종파는 계율종이다.

③ 11세기에 이미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1055~1101)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 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④ 무신집권 초기 지눌(1158~1210)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⑤ 지눌의 수선사 결사 운동은 지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그의 제자인 혜심(1178~1234)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7. 밑줄 그은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역사 신문

제△△호 ○○○년○○월○○일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다

왕족 복신과 승려 도침 등이 주류성을 근거지로 부흥의 기치를 내걸자 주변 지역의 200여 성이 호응하였다. 이들은 부여풍을 왕으로 받들고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①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②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몰아냈다.
③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④ 중국의 오월과 후당에 외교 사절을 보냈다.
⑤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살해하였다.

정답: ③

* 백제 부흥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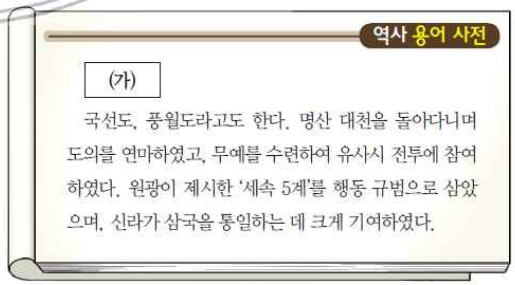
의자왕으로 인한 정치 질서의 문란과 지배층의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는, 계백의 5천 결사대의 항쟁에에도 불구하고 나.당 연합군에 의해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660).

그러나 각 지방의 저항 세력은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내분과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부흥 운동은 좌절되었다. 이 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갔다(663).

①, ④, ⑤ 상주의 군인 출신 견훤은 황해안의 해상 세력과 도적 떼 등을 군사 기반으로 흡수하여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여 후백제를 세우고(900), 중국(후당, 오월)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 그는 927년 대야성을 점령하고 이어 신라 수도 금성을 급습하여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자결케 하였고, 신라를 도우러 온 왕건의 고려군을 공산(대구) 전투에서 대패시켰다.
그러나 왕건의 고려는 신라인의 신망을 얻었고, 그 결과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935).

② 나당 전쟁 때에 신라는 매소성(675)과 기벌포(676)에서 섬멸하고,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도 요동성으로 밀어 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676).

8.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경당에서 글과 활쏘기를 배웠다.
②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었다.
③ 박사와 조교를 두어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④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⑤ 귀족들로 구성되어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다.

정답: ②

* 신라 화랑도

신라 청소년은 화랑도 활동을 통하여 전통적 사회 규범을 배웠다.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제천 의식을 행하고, 사냥과 전쟁에 관하여 교육을 받음으로써 협동과 단결 정신을 기르고 심신을 연마하였다. 수에 걸사표를 지어 올린 원광은 화랑들에게 세속 5계(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를 가르쳐 마음가짐과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화랑도는 씨족공동체 사회의 청소년 집회소의 전통을 이은 청소년 수련단체로 삼국항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진흥왕 때 국가조직으로 정비되어(576) 삼국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한 세기 동안에 활기를 띠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그러나 통일 후 나라에 태평시대가 계속되면서 쇠퇴하여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화랑도는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였다. 서로 다른 여러 골품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나, 우두머리인 화랑만은 진골 귀족에서 뽑혔고, 그를 따르는 낭도 중에는 왕경에 사는 진골 이하 하급 귀족, 그 밖에 일반 평민의 자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화랑도는 한 시대에 하나의 집단만이 아닌 여러 집단이 존재하였으며, 각 화랑도는 각기 화랑 한 명과 승려 약간 명, 그리고 화랑을 따르는 다수의 낭도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여러 계층이 같은 조직 속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구실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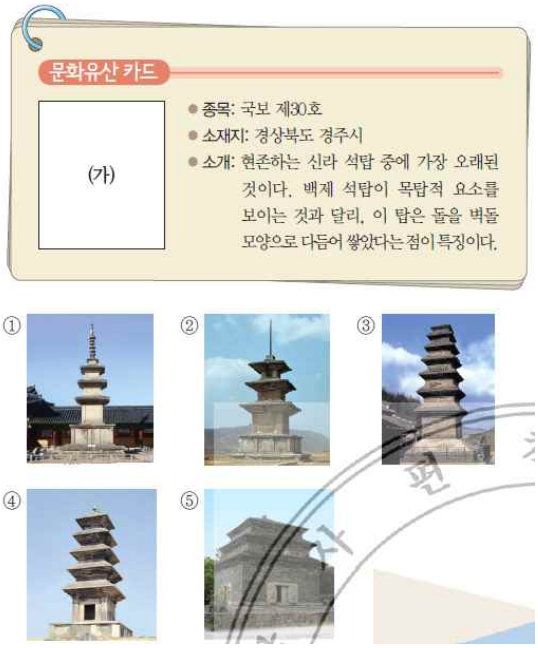
①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에 수도에 태학(372)을 세워 고관 귀족 자제들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고,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장수왕대) 청소년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③ 통일 신라에서는 신문왕(681~692) 때 국학(682)이라는 유학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그 후, 경덕왕(742~765) 때에는 국학을 태학으로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④ 백제는 정사암 회의라는 귀족회의체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나 여러 부의 힘을 통합하여 국가의 동원력을 강화하는 일 등을 결정하였다.

⑤ 신라의 초기 연맹체의 전통을 유지한 대표적인 제도는 화백 회의였다. 화백회의는 진골 귀족으로 구성되어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으며, 귀족은 이를 통하여 국왕을 폐위시킨 적도 있었고, 새 국왕을 추대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9.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⑤

* 신라의 분황사 모전 석탑

분황사는 634년(선덕여왕 3)에 창건되었으며, 국보 제30호로 지정된 모전 석탑이 유명한데, 이는 현존하는 신라의 석탑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 있다.

1층 4면에는 감실(龕室)을 만들고 그 좌우에 인왕상(仁王像)을 각각 1구씩 새긴 화강암을 끼웠다. 이 인왕상 조각은 당시 7세기 신라 조각 양식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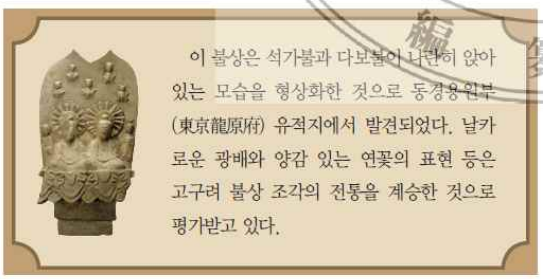
①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국보 21호. 불국사의 대웅전 영역은 법화경의 세계를 다보여래(과거불)를 상징하는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과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여래(현재불)를 상징하는 석가탑으로 구현하였다. 특히 석가탑은 통일 신라기(8세기)에 유행한 3층 석탑의 전형을 보여준다.

② **경주 감은사지 3층 석탑(국보 112호)**: 2중의 기단에 사각형으로 쌓아올린 3층 석탑으로, 동·서 두 탑이 같은 규모와 구조이다. 많은 석재를 이용한 수법은 백제의 석탑과 같으나, 그것이 목조탑파를 충실히 모방한 것인데 반해 이 석탑의 조형수법은 기하학적으로 계산된 비율에 따른 것이다. 감은사는 682년(신문왕 2년)에 창건되었으므로 이 탑의 건립도 그 무렵으로 추정되는 오래되고 거대한 석탑으로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으로 이어졌다.

③ **안동 신세동 7층 전탑**: 국보 16호. 8세기 말. 원형이 보존된 한국 최고(最古)의 전탑(벽돌탑)이다(모전 석탑이 아님).

④ **의성 탑리 5층 석탑**: 국보 77호. 7세기 말~8세기 초의 통일 신라 초기 모전 석탑. 지붕돌은 전탑 양식이고, 몸돌은 석탑 양식으로 된 특징이 있다.

10. 다음 문화유산을 만든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이 불상은 석가불과 다보불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날카로운 광배와 양감 있는 연꽃의 표현 등은 고구려 불상 조각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 기〉

ㄱ.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ㄴ. 중앙 6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하였다.
ㄷ.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ㄹ.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이불병좌상을 만든 발해에 대하여

- 발해의 수도 중 하나였던 동경의 절터에서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불병좌상이 집중 발굴되었다. 이 불상은 흙을 구워 만든 것으로,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고구려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다.

- 발해의 중앙의 정치 조직은 3성과 6부를 근간으로 편성하였다.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이 충·인·의 3부를, 우사정이 지·예·신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구성하였다. 당의 제도를 수용 하였지만,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의 독자성을 유지하였으며 6부의 명칭은 유교적인 특징이 있다

- 발해는 무왕, 문왕 대의 발전을 토대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무왕), 대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고려는 태조(918~943) 때부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 신라는 삼국 통일 후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고, 지방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 상수리(上守吏)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1.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왕이 말하기를, "짐이 정무를 새로이 하게 되어 혹시 잘못된 정치가 있을까 두렵다. 중앙의 5품 이상 관리들은 각자 상서를 올려 정치의 옳고 그름을 논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최승로가 왕의 뜻을 받들어 시무 28조를 올렸다.

① 관학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현고를 두었다.
②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③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
④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⑤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정답: ④

* 고려 성종의 업적

고려 성종(981~997)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이 때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982).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은 먼저 지방관을 파견(12목 설치)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 하였다. 또한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어서 성종은 중앙의 통치 기구를 개편하였다. 당의 3성(중서.문하.상서-성) 6부(이.병.호.형.예.공-부)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약간 변형을 가하여 2성(내사문하성, 상서성) 6부(이.병.호.형.예.공-부)와 송의 제도를 받아들여 중추원(군사기밀, 왕명출납)과 삼사(곡식, 회계)을 고려 자체적인 것으로 도병마사(동서북면병마사 판사제에 기원)와 식목도감(법제 제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 관제를 마련하였다.

① 예종(1105~1122)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무학재를 포함한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 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고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② 태조(918~943)는 애민정책의 일환으로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취민유도),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③ 광종(949~975)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⑤ 공민왕(1351~1374)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12.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무신 집권기 주요 기구〉

명칭	성격
중방	(가)
도방	(나)
교정도감	(다)
정방	(라)
서방	(마)

① (가) – 국정 자문을 위한 문신들의 숙위(宿衛) 기구
② (나) – 최우의 집에 설치된 인사 행정 담당 기구
③ (다) – 최씨 무신 정권에서 국정을 총괄한 최고 권력 기구
④ (라) – 치안 유지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군사 기구
⑤ (마) – 재신과 추신으로 구성되어 법제와 격식을 논의한 회의 기구

정답: ③

* 고려 무신정권기의 주요 기구들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등 무신들은 1170년 정변을 일으켜 다수의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하여 거제도로 귀양 보낸 후, 명종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다. 무신들은 상장군과 대장군의 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경대승과 최씨 정권은 신변의 위험을 느껴 사병인 도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최씨 정권을 연 최충헌(1196~1219 집권)은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고, 사병 기관인 도방을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였다.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1219~1249)도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하였고, 도방 외에 야별초에서 분리된 좌별초와 우별초 및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으로 구성된 삼별초를 두었다. 삼별초는 경찰, 군사 기능을 담당한 반관반민의 준군사집단인 동시에 최씨 무신정권의 전위로서 다분히 사병적인 요소도 있었다. 그러나 항몽전에서는 그 선두에서 유격전술로 몽골병을 괴롭혔다.

더 나아가 최우는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정국이 안정되면서 서방을 설치하여 문학적인 소양과 함께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하여 숙위케 하고 고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① 고려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인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재추 회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구성하여 국방문제와 같은 국가 중요문제를 논의하고(도병마사), 법제와 격식을 논의하였다(식목도감).

13.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의 군사들이 곽주로 침입하였다. …… 성이 결국 함락되었다. 적은 군사 6천 명을 남겨 지키게 하였다.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군사 7백여 명을 이끌고 통주까지 와 군사 1천여 명을 수습하였다. 밤중에 곽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던 적들을 급습하여 모조리 죽인 후 성 안에 있던 남녀 7천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
>
> -「고려사」-

①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② 김윤후의 활약으로 처인성에서 승리하였다.
③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④ 초조 대장경을 만들어 적을 물리치기를 기원하였다.
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정답: ④

* 고려의 거란과의 항쟁

10세기 초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과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처음에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993). 그러나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994).

강조의 정변을 구실삼아 쳐들어온 현종 때의 2차 침입(1010) 때에는 개경이 함락되고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가기도 하였다. 국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거란군은 철병하였다.

이 때 양규는 흥화진(의주)에서 거란 20만 대군에 맞서 싸워 돌아가게 만들었고, 철병하는 거란군을 급습하여 귀주에서 7전 전승을 거두며 3만명이 넘는 백성을 구하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3차 침입 때에는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맞서 싸워 살아 돌아간 거란의 군사가 겨우 수천에 이를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귀주 대첩, 1019).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계속 막아 내자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할 수 없었고, 송을 침략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고려와 송, 거란 사이에는 세력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수비를 강화하였으며, 북쪽 국경 일대에 천리장성을 쌓아 거란과 여진의 침략에 대비하였다(1033~1044).

또한 이 때 부처의 힘을 빌려 거란을 물리치려고 대장경을 간행하였는데(초조 대장경). 70여 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목판에 새겨 간행되고 부인사에 보관되던 이 초조대장경(1011~1081)은 몽골의 2차 침입(1232) 때에 불타 버리고 인쇄본 일부가 남아 고려 인쇄술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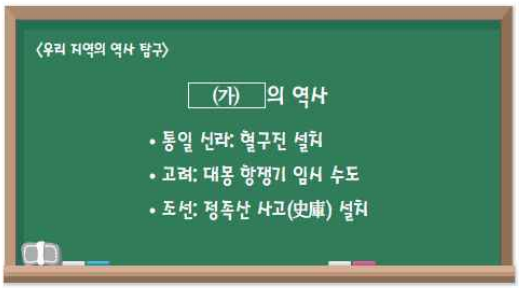
①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을 편성한 다음(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② 몽골의 2차 침입(1232) 때에 김윤후는 처인(용인) 부곡민을 이끌고 몽골 장수 살리타의 군대를 물리쳤다

③ 고려 말 우왕 때에 최무선은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금강 하구)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1380).

⑤ 공민왕은 반원자주정책의 일환으로 원에 빼앗긴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다(1356).

14.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육영 공원이 설립되었다.
②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었다.
③ 조선 형평사 중앙 총본부가 있었다.
④ 물산 장려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다.
⑤ 영국군에 의해 불법으로 점령되었다.

정답: ②

* 강화도의 역사

강화도는 선사 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사실이 있다.

부근리의 고인돌(사적 제137호) 유적지는 돌방의 짧은 변을 이루는 2매의 굄돌이 없는 북방식(탁자식) 고인돌로 유명하고, 화순.고창과 함께 2000.1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강화도 마니산상에 있는 참성단은 단군의 제천지로서 고려와 조선 초에 초제를 올렸다.

고려 때에는 몽고의 1차 침입 후, 최씨 정권은 1232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항전하였다. 후일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개경환도(1270)할 때까지 임시수도 역할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가 불에 타버려, 1603~1606년까지 전주 사고본 실록을 근거로 태조에서 명종까지 13대에 걸친 실록을 다시 4부씩 인쇄하여 춘추관, 묘향산, 태백산, 오대산, 강화도 마니산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고 실록을 보관하였다. 춘추관 실록은 이괄의 난(1624)으로 모두 소실되었고, 마니산 사고의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의 피해를 입어 현종 때 보수하여 1678년(숙종 4)에 가까운 정족산 사고로 옮겨졌으며, 묘향산 사고본은 1633년에 전라도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다.

근대에 들어서는 정족산성과 광성보가, 각각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의 격전지였고, 1876년 1월에는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을 일본과 체결하며 근대적 문호 개방을 하게 되었다.

① 개항 이후에 조선 정부는 서울 전동에 육영공원(1886~1894)을 세우고 헐버트 등 미국인 교사 세 사람을 초빙하여 주로 양반 자제들에게 신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다.

③ 가장 천대받았던 직업인 백정(도축업자)들은 3·1 운동(1919) 이후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백정 출신 장지필, 이학찬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고(1923) 사회 운동 단체와 협력하며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1924년 서울에 조선형평사 중앙총본부 설치).

④ 1920년대 들어 회사령이 폐지되며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족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자립을 이루자는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⑤ 갑신정변(1884.12) 직후 조.러 밀약설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이 활발해지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전남 남해안의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하였다(1885~1887).

15.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건물은 국보 제18호로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다. 지붕의 형태는 팔작 지붕이며, 처마를 받치기 위한 공포를 기둥 위에만 올린 주심포 양식이다. 기둥은 배흘림 기법으로 세워졌으며, 건물 내부에는 소조여래 좌상이 있다.

①
수덕사 대웅전

②
불국사 대웅전

③
쌍계사 대웅전

④
봉정사 극락전

⑤
부석사 무량수전

정답: ⑤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 영주에 소재한 부석사(浮石寺)는 의상(625~702) 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세운 화엄 10찰 중의 하나로, 사찰로서는 불국사 다음으로 국보급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아미타여래불(서방정토 주관)이 모셔져 있는 국보 18호의 무량수전 외에도 조사당(국보 19),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국보 45), 조사당 벽화(국보 46), 무량수전 앞 석등(국보 17) 등이 있다.

이 중 무량수전(국보 18호, 정면 5칸, 측면 3칸, 주심포 팔작 지붕)은 1376년 중수된 오래된 건물이며, 배흘림 기둥, 삼중으로 맵시 있게 겹쳐진 포작, 이중 서까래로 인한 지붕의 가벼운 곡선등이 이 건물의 특색이며, 전체적으로 장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무량수전 내의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소조불상 가운데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그 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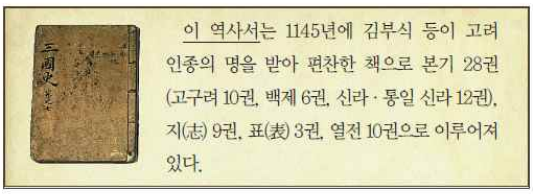
①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 1308년으로 건립 연대가 확실하여 한국 건축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균형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 **불국사 대웅전**(보물 1744호, 정면 5칸, 측면 6칸의 다포계 팔작 지붕): 8세기 중엽(751)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현재의 건물은 1765년에 중창된 것이다. 대웅전 영역은 묘법연화경(법화경)의 세계를 다보여래(과거불)를 상징하는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과 기단이나 탑신에 아무런 조각이 없어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여래(역사적 불)를 상징하는 석가탑(3층 석탑)으로 구현하였다.

③ 조선 후기 18세기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한 부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근거지에 장식성이 강한 사원이 많이 세워졌다. 논산 쌍계사(보물 408호,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부안 개암사, 안성 석남사 같은 사원이 대표적이다.

④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 정면 3칸, 측면 4칸, 주심포 맞배 지붕): 1363년 중수된 기록이 있어 13세기 초 건립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다.

16. 밑줄 그은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유교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② 자주적 입장에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③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였다.
④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⑤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서술하였다.

정답: ①

*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려 중기 인종 때에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정사(正史)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신라 계승 의식이 강화되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신라 계승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②, ④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때에 일연이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신이적(神異的) 사실을 많이 담고 있어 왕력과 함께 기이편을 책의 권두에 두며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특히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③ 조선은 국왕이 죽으면 다음 국왕 때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사초, 각 관청의 문서를 모아 만든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실록을 편년체로 편찬하였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⑤ 이규보의 동명왕편(1193)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17. (가)~(라) 제도를 시행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왕 1년 11월, 처음으로 직관(職官)·산관(散官)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나) 왕 16년 3월,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주었다.
(다) 왕 1년 4월, (대왕대비가) 전지하기를, "직전(職田)의 세는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라) 왕 3년 5월, 도평의사사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과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따랐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가) – (라) – (다)
⑤ (다) – (나) – (가) – (라)

정답: ④

* 역대 토지 제도의 변화

- 고대(삼국, 통일신라)의 귀족은 본래 스스로 소유하였던 토지 외에도 국가에서 준 녹읍, 식읍을 가지고 있었다. 녹읍은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신라 중대 신문왕 7년(687)에는 수조권만 부여한 관료전을 지급하고, 9년(689)에는 녹읍을 폐지하였다가, 귀족들의 반발로 경덕왕 16년(757)에 다시 부활되었다.

- 고려 전시과 제도에서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따라서 전국의 공.사전 토지가 대상이고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갖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수조권자의 중복을 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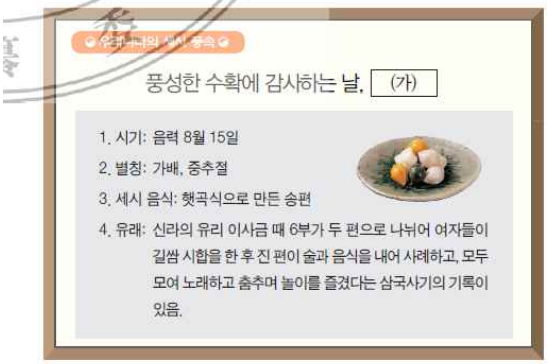
전시과 제도는 경종 1년(976)에 처음 만들어졌다(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직.산관에게 지급).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목종 1년(998)에 지급량을 줄이고(개정 전시과, 관품만 반영, 문반 우대, 직.산관에게 지급), 문종 30년(1076)에는 지급 대상을 직관(현직)으로 제한하였다(경정 전시과, 무반 대우 향상).

- 조선은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려 말의 사전 개혁으로 시작된 과전법(1391, 공양왕 3년)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과전은 직.산관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권 토지로 원칙적으로 유력자의 토지 탈점을 막기 위하여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고, 고려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에도 수조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12년(1466)에는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명종 11년(1556)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다(1556).

과전, 직전법 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1년(1470, 자성대비 수렴첨정)에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관수관급제).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18. (가) 세시 풍속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입춘 거꾸로 붙였나.
②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
③ 옷은 시집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④ 게으른 선비 설날에 다락에 올라가서 글 읽는다.
⑤ 정월 보름달을 먼저 보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

정답: ③

* 추석의 세시풍속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로 중추절(中秋節), 가배(嘉俳), 한가위라고도 한다.

역사적 유래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유리왕 때 6부의 여자들을 둘로 편을 나누어 두 왕녀가 여자들을 거느리고 7월 기망부터 매일 뜰에 모여 밤늦도록 베를 짜게 했다. 8월 보름이 되면 그동안의 성적을 가려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대접했다. 이때 회소(會蘇)라는 노래와 춤을 추며 놀았는데 이를 '가배(嘉俳)'라고 불렀다.

8월은 한해 농사를 수확하고 마무리하는 풍성한 시기로 명절 중 으뜸이다. 일 년 동안 기른 곡식을 거둬들인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상을 차려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① 양력 2월 4일인 입춘은 봄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지방을 집에 붙인다.

② 동면하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驚蟄: 양력 3월 5.6일)과 관련이 있는 속담

④ 음력 1월 1일인 설날은 한 해의 시작으로 보통 의미있는 계획을 세운다.

⑤ 음력 1월 15일인 정월 대보름 저녁에 보름달이 솟아오르면 원추형의 나뭇더미를 불에 태우는 달집태우기, 횃불을 땅에 꽂고 합장하여 저마다 소원을 빈다.

19. (가) 화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금과 은은 국가의 보물인데, 근래에 간악한 백성들이 구리를 섞어 몰래 주조하고 있다. 지금부터 (가) 에 모두 표식을 새겨 이로써 영구한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어기는 자는 엄중히 논죄하겠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은 1근으로 만들어졌는데, 모양은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뜨도록 하였다.

① 청과의 교역에 사용되었다.
② 조선 시대에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③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화폐였다.
④ 입구가 넓어 활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⑤ 경복궁 중건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발행되었다.

정답: ④

* 활구(은병)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로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었으며, 숙종(1095~1105)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 딴 은병을 만들어 통용시켰는데, 민간에서는 입구가 넓다하여 이를 활구(闊口)라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저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① 조선 후기 청과의 교역에서는 은으로 결제하였다(청은 은납제 국가)

② 조선 후기 숙종 대에 주조된 상평통보(1678)는 가장 널리 유통되어 상품거래 뿐만 아니라 세금과 소작료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⑤ 흥선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1866년(고종 3)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하였다. 당백전은 모양과 중량이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당백전 1매의 명목가치는 실질가치의 약 100배에 달할 정도로의 대표적인 악화(惡貨)로 물가상승을 야기하였다.

20.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관리를 재교육하였다.
② 집현전을 폐지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③ 현량과를 실시하여 신진 사림을 등용하고자 하였다.
④ 균역법을 시행하여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⑤ 탕평비를 건립하여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하였다.

정답: ②

* 조선 세조(1455~1468)의 업적

세종 이후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곧,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이 넘어가자, 수양 대군은 계유정난(1453)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단종의 양위를 받아 후일 세조로 왕위에 올랐다(1455).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통치체제를 다시 6조 직계제로 고쳤으며, 자신의 활동을 견제하는 집현전을 없앴다(1456). 그리고 경연도 열지 않았으며, 태종 이후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던 종친들을 등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 강화책으로 5위, 진관체제, 보법(保法) 등을 실시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과전법을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인지의(규형)를 통한 토지 측량, 상평창 제도의 부활 등의 제도 정비, 경국대전의 착수(호전, 형전)와, 문종 실록, 사시찬요, 정관정요주 등의 편찬 사업 업적이 있었으며 간경도감(불경 언해) 설치, 원각사와 원각사 10층 석탑의 건립 등 불교 진흥도 있었다.

사후 능은 남양주에 소재한 광릉이다.

① 정조(1776~1800)는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③ 중종 반정(1506) 후 중종(1506~1544)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정암 조광조(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사림의 학통이 이어짐)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④, ⑤ 영조(1724~1776)는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양의 성균관에 붕당간의 다툼을 금하는 탕평비를 세웠고(1742),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균역법(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줌)을 시행하였다.

21. 다음 그림이 그려진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삼강행실도를 읽고 있는 양반
② 고구마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
③ 장용영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
④ 천리경으로 멀리를 보고 있는 관리
⑤ 동의수세보원 처방에 따라 약방문을 짓고 있는 의원

정답: ①

* 몽유도원도가 그려진 15세기 모습

화원 출신인 안견은 역대 화가들의 기법을 체득하여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 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몽유도원도(1447년)는 안평 대군이 꿈 속에서 본 도원(桃園)을 그리게 한 그림이다.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하여 구현한 걸작이다. 현재 일본 덴리 대학에 소재하고 있다.

① 조선 세종 대에 설순 등을 시키어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1431~1434).

② 구황작물인 고구마는 1763년(영조 39) 통신사 조엄에 의해 전래되어 이후 정조 등에 의해 적극 재배가 장려되었다.

③ 정조(1776~1800)는 친위 부대로 장용영(1785년 장용위, 1793년 장용영으로 확대)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④ 서양 문물은 17세기경부터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을 통해서 들어왔다. 선조 때 이광정은 세계 지도를 전하고, 인조 때 정두원은 화포, 천리경(망원경), 자명종 등을 전하였다.

⑤ 19세기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1894)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이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4가지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체질 의학 이론으로, 오늘날까지도 한의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22. 다음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주요 건물 배치도〉

선현제향(先賢祭享)과 학문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조선 시대의 사설 교육 기관이다. 향촌 사림의 모임 장소로, 시정을 비판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도 하였다.

주요 건물로는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는 사당, 강연과 회의가 열리는 강당, 일종의 기숙사인 재(齋)가 있다.

①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되었다.
②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③ 국자학, 태학, 사문학으로 나누어 교육하였다.
④ 전국의 부 · 목 · 군 · 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⑤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기도 하였다.

정답: ⑤

* 조선의 사학(私學) 서원(書院)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생겨난 사학으로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1543). 그 후 1550년(명종 5년) 후임 풍기 군수 이황의 건의로 백운동 서원은 최초의 사액 서원인 소수 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사액 서원은 국가의 공식적 승인을 의미하고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토지와 노비 그리고 서적을 내려받고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부여하여 실제로는 관학과 유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서원은 보통 교육 공간인 강당을 중심으로 선현을 제사하는 공간인 사당과 기숙 시설인 동재와 서재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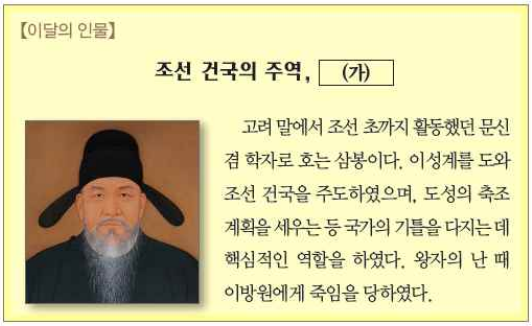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성리학 연구를 심화시키고, 지방 문화의 발전과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① 사족(士族)들이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인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서 좌수, 별감 등이 회의를 주도하였다.

②, ④ 향교는 관학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균관처럼 성현에 대한 제사(대성전: 공자 제향)와 유생의 교육(명륜당)을 하였으며,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종6품) 또는 훈도(종9품)를 파견하였으며, 5~7결의 학전을 지급하여 그 수세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③ 고려는 중앙에 국립대학으로 국자감(국학)이 설치하였다.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같은 유학부와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 유학부에는 문무관 7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입학하고, 기술학부에는 8품 이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되어 지방 관리와 서민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23.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불교 이론을 비판한 불씨잡변을 저술하였다.
② 만권당에서 원의 성리학자들과 교유하였다.
③ 공납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④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만들었다.
⑤ 군사력 강화를 위해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정답: ①

*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

조선 왕조 개창의 1등 공신 중의 하나가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인 삼봉 정도전(1342~1398)이다. 고려 말 공민왕 대에 이색을 중심으로 학문적 유대관계를 통해 교유해 온 인물(신진사대부)들 중 하나로 신돈 정권기 개혁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1383년 신흥 무인세력인 이성계와 만나 제휴하였고, 이후 이인임 권문세족 정권과 위화도회군 이후에는 최영 세력을 몰아내고 신진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조를 지속하려는 이색, 정몽주 등의 온건파 사대부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는 조준 등과 함께 과전법(1391)을 주도하고 온건파들을 제거하고 결국 역성혁명의 입장을 주도하며 조선 건국에 앞장섰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초창기의 문물 제도를 갖추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태조 때(1394) 교통과 국방의 중심지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도성을 쌓고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종묘, 사직, 관아, 학교, 시장, 도로 등을 건설하여 도읍의 기틀을 다졌는데 이 때 궁궐과 종묘의 위치 및 도성의 기지를 결정하고 궁·문의 모든 칭호를 정했다

또한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써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고,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의 진리를 논파하고 배척을 주장한 불씨잡변(1394)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그러나 명과의 갈등(표전문 사건의 당사자) 속에 요동정벌을 추진하고 세자 방석을 후원하다가, 1차 왕자의 난(1398)에서 이방원에 의해 처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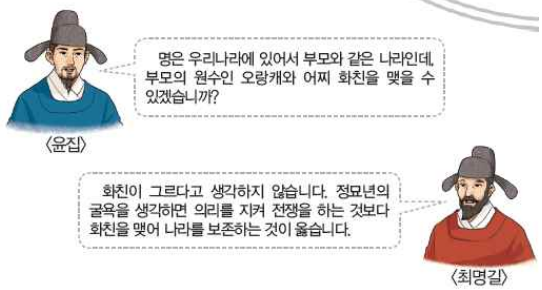
② 충선왕 때 이제현(1287~1367)은 원의 수도에 설립된 만권당(1314)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③ 이이(1536~1584)는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공납의 개혁방안으로 수미법 제안)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태종 때에는 김사형(1341~1407), 이회 등을 시켜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를 만들었다. 이지도의 필사본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계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 된 것이다

⑤ 임진왜란 중 삼도체찰사 유성룡(1542~1607)의 건의에 따라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 양성을 위해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년 8월).

24. 다음 논의가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청이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② 일본의 침략으로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였다.
③ 청이 나선 정벌을 위하여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다.
④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명의 요청으로 파병되었다.
⑤ 이괄이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평안도에 주둔하였다.

정답: ①

* 병자호란과 주전론, 주화론

인조반정(1623)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또한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 평안도에 주둔하였던 이괄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1624)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자, 그 잔당들이 후금으로 피신하여 조선 침입을 종용하자,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왔다(1627). 이를 정묘호란이라 한다. 정봉수와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특히, 정봉수는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강화를 제의하여 형제관계의 화의와 조공과 국경에서의 관무역을 조건으로 철군하였다.

그 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군신 관계를 맺자며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1636.12). 이를 병자호란이라 한다.

인조는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45일간 항전하였으나, 청과 싸우자는 주화파(김상헌과 윤집.오달제.홍익한-삼학사)와 강화를 맺자는 주화파(최명길 등)의 논쟁 속에 결국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3배 9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찧음)를 맺었다.

그 동안 조선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도 오랑캐로 여겨 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거꾸로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후 효종 때에 오랑캐에 당한 수치를 씻고(복수설치: 復讐雪恥), 임진왜란 때 도와 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재조지은: 再造之恩) 청에 복수하자는 의식이 대두되어 북벌 운동이 준비되었다.

②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의주까지 피신하였다.

③ 효종 때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군대를 양성하던 중, 연해주 흑룡강 방면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격퇴키 위해 청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여 북벌 훈련 중의 조선 군사(조총병)을 보내어 청나라 군사와 함께 2차례의 정벌(나선 정벌)에 나서 큰 전과를 올렸다(1차: 1654-변급, 2차: 1658-신유).

④ 광해군은 중립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토벌키 위해 심하(深河)에 강홍립과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적당히 싸우다 항복하게 하였다(1619).

25.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 탓에 쇠퇴할 것이다. ……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자들의 길쌈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工匠)이 숙련되지 못하면 기예가 망하게 된다.

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②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③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하였다.
④ 현지 답사를 바탕으로 지리서인 택리지를 저술하였다.
⑤ 산줄기, 물줄기, 도로 등을 표시한 대동여지도를 완성하였다.

정답: ②

* 중상적(북학파) 실학자 박제가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가 나타났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상공업 중심의 실학 사상은 18세기 전반의 유수원에 의해 제기되어, 18세기 후반에 북학파라는 이름으로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정조의 붕당 뿐만 아니라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등용 정책에 따라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등과 함께 서얼 출신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또,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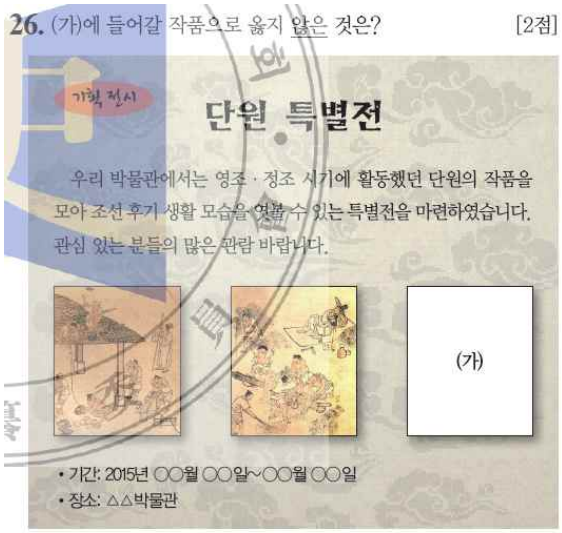
① 김정희(1786~1856)는 금석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 등을 밝혔다.

③ 북학파 실학자 박지원(1737~1805)은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옹전 등의 한문 소설을 써서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실용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 이중환이 현지답사를 바탕으로 쓴 택리지(1751)는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환경과 함께 각 지역의 경제생활과 풍속을 자세히 보여주며 자연과 인간 생활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⑤ 김정호(?~1866)가 만든 대동여지도(1861)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하고, 거리를 알 수 있도록 10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었으며, 휴대가 가능하도록 22첩의 분첩절첩식이고, 대량 제작이 가능하도록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26.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⑤

* 단원 김홍도의 작품

조선 후기에 유행한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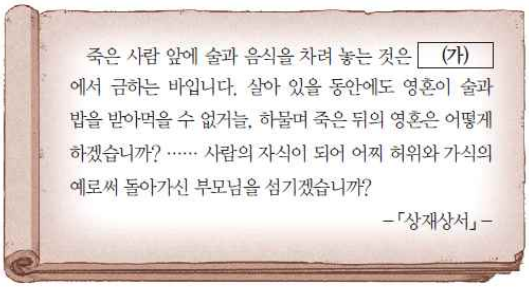
특히 도화서 출신 단원 김홍도(1745~?)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밭갈이, 추수, 씨름, 서당 등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묘사하였다.

김홍도에 버금가는 풍속화가인 도화서 출신 혜원 신윤복(1758~?)은 주로 양반과 부녀자의 생활과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도화서 출신 긍재 김득신(1754~1822)도 김홍도의 화풍을 계승해 해학적 분위기와 정서를 가미하였다.

① 김홍도의 '서당도'
② 김홍도의 '대장간도'
③ 김홍도의 '자리짜기'
④ 김홍도의 '씨름도'
⑤ 김득신의 '노상알현도'

27.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② 왕조 교체를 예언하며 백성의 호응을 얻었다.
③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인간 평등을 주장하였다.
④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⑤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 신앙의 요소까지 포함하였다.

정답: ④

* 천주교

- 출전이 <상재 전서>를 통하여 천주교임을 알 수 있다('상재'는 천주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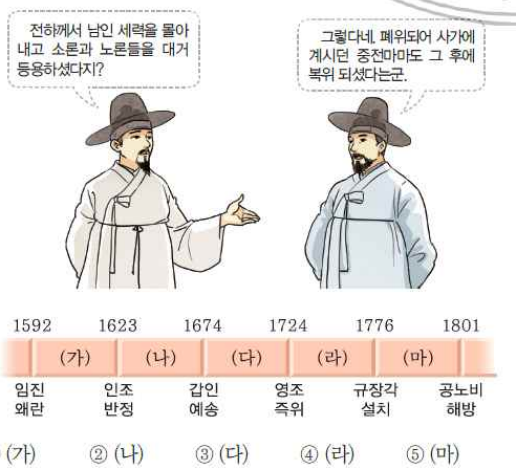
-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서양인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 돌아온 이후로 신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정부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교세가 확장되고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유교의 제사 의식을 거부하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부정과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사교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조 때에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순조가 즉위한 직후에 대탄압이 가해졌다(1801). 이 사건으로 천주교 전래에 앞장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천주교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기에 탄압이 완화되면서 백성에게 활발히 전파되었다. 조선 교구가 설정되고, 서양인 신부가 몰래 들어와 포교하면서 교세가 확장되어 갔다. 천주교의 교세가 커진 것은 세도 정치로 말미암은 사회 불안과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논리, 내세 신앙 등의 교리가 일부 백성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① 고려에서 조선 전기에는 궁중에서 도교의 식의 하나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성행하였다.

②, ③, ⑤ 최제우가 유.불.선(도)을 바탕으로 민간신앙의 요소도 가미하여 1860년 창시한 동학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섬길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시천주(侍天主)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 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으며, 후천개벽(현세의 부귀와 빈천이 바뀐다)을 부르짖어 조선 왕조의 운세가 다하여 교체된다고 보았다.

28.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갑술환국(1694)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붕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경신환국(1680): 유악(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실제는 도체찰사 문제) 서인이 남인(허적, 윤휴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 송시열 등 사사.

갑술환국(1694): 폐서인되었던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와 중전이었던 장희빈의 강등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노론과 소론) 재집권

29. (가)~(마)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가) – 책문 후시를 통해 대외 무역에 종사하였다.
② (나) – 신해통공 이후에도 금난전권을 행사하였다.
③ (다) – 사개치부법이라는 독자적인 회계법을 창안하였다.
④ (라) – 한강을 중심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업에 종사하였다.
⑤ (마) – 왜관을 중심으로 대일 무역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 조선 후기 여러 지역의 사상(私商)

조선 후기에 사상(私商)들이 종루, 칠패, 배오개(이현), 송파, 누원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하자 시전상인들은 국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난전(사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으나, 정조 때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이 폐지되며(1791, 신해통공) 사상(私商)들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사상의 활동은 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성(송상), 평양(유상), 의주(만상), 동래(내상) 등 지방 도시에서도 활발하였다. 이들 지방 상인들은 대외 무역에도 종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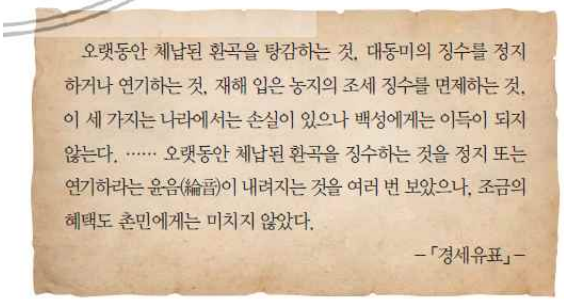
송상은 '사개치부법'이라는 일종의 복식부기를 사용하였고,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판매하였으며, 대외 무역에도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특히 만상과 내상을 중계하며 큰 이득을 남기기도 하였다

경강 상인은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의주의 만상은 대청 인삼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특히 일종의 사무역인 책문 후시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대청 사무역 장소로 양국 사신의 왕래를 따라 책문에서 요동 상인과 의주의 만상, 더 나아가 개성의 송상간의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동래의 내상은 부산 왜관을 중심으로 일본 상인과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30. 다음 자료가 저술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오랫동안 체납된 환곡을 탕감하는 것, 대동미의 징수를 정지하거나 연기하는 것, 재해 입은 농지의 조세 징수를 면제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나라에서는 손실이 있으나 백성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 오랫동안 체납된 환곡을 징수하는 것을 정지 또는 연기하라는 윤음(綸音)이 내려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으나, 조금의 혜택도 촌민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경세유표」-

①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②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6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③ 공신과 왕족의 사병이 혁파되고 군사권이 강화되었다.
④ 비변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행사하였다.
⑤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정답: ④

.* 경세유표가 저술되고 환곡의 문제가 심했던 세도정치기(19세기 초)

- 실학을 집대성한 최대의 학자는 정약용(1762~1836)으로, 신유사옥으로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1801~1818) 지방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목민심서(1818), 중앙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1817)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 정조의 탕평 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결과적으로 세도정치의 빌미가 되었다. 정조가 죽은 후 3대 (순조, 헌종, 철종)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소수의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세도정치기(1800~1863)에는 왕권이 약화됨은 물론 붕당정치와 관련된 탕평파와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던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권력 구조에서도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래의 관리는 언론 활동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잃은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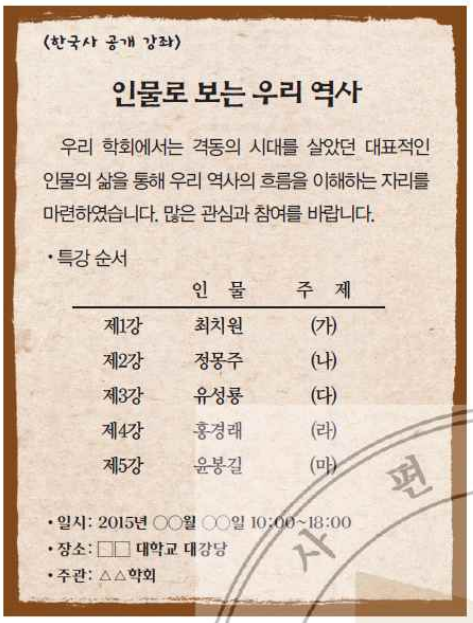
또한 세도정치 하에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며 관직이 매매되는 등 비리가 만연하였으며, 탐관오리들의 부당한 조세 수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즉 수령 자리가 상품화되며 삼정(전정.군정.환곡의 3가지 세금 행정)의 문란으로 극도에 달하였는데, 특히 환곡의 폐단이 심하였다.

① 명종 때에 왕위 계승을 놓고 외척인 소윤(윤원형)과 대윤(윤임)간의 권력 싸움과, 양편 모두에 사림이 가담하여 을사사화(1545)가 일어나 큰 희생을 당하였다.

②, ③ 정도전 등 개국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종(1400~1418)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계제를 채택하고,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 군사를 늘렸다.

⑤ 선조가 즉위(157)하면서 그 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으나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와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동.서로 분당이 되었다(1575)

31.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한국사 공개 강좌)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

우리 학회에서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특강 순서

	인 물	주 제
제1강	최치원	(가)
제2강	정몽주	(나)
제3강	유성룡	(다)
제4강	홍경래	(라)
제5강	윤봉길	(마)

• 일시: 2015년 ○○월 ○○일 10:00~18:00
• 장소: □□ 대학교 대강당
• 주관: △△학회

① (가) – 시무책을 제시한 6두품 지식인
② (나) – 절개와 의리를 지킨 고려의 충신
③ (다) –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징비록의 저자
④ (라) –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든 동학 농민군 지도자
⑤ (마) –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던진 한인 애국단원

정답: ④

* 역대 격동기의 인물들의 역사

최치원(857~?): 신라 말의 대표적인 6두품 출신 유학자로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고 관리 생활을 하며 '토황소격문' 등을 써서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귀국하여 진성여왕 때에 개혁안 10여 조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겼다.

정몽주(1337~1392): 고려 말 대표적인 성리학자(동방이학의 원조). 신진사대부 중 온건파를 이끌며 급진파(혁명파)와 대립하다 이방원(태종)에 의해 개성 선죽교에서 죽임을 당한 충신이다. 그의 변개치 않는 충심을 담은 시조인 단심가(丹心歌)가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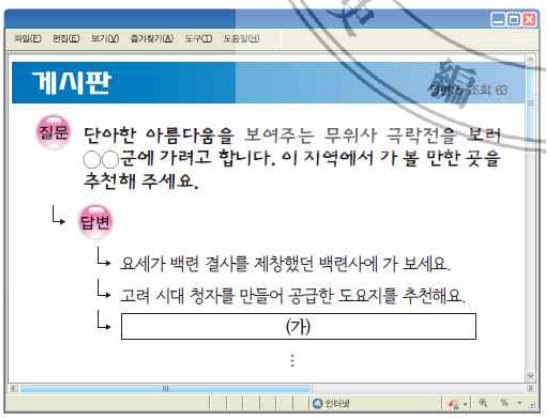
유성룡(1542~1607):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천거한 것으로 유명하며 임지왜란 때의 상황을 기록하여 후세에 교훈을 주고자 한 징비록(국보 132호)을 저술하였다.

홍경래(1771~1812): 잔반 출신으로 중앙 정부의 서북지역민의 차별을 이용하여 세도정치 하 최초의 농민봉기인 홍경래의 난 주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윤봉길(1908~1932): 김구가 이끈 한인애국단 출신으로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상해 점령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 등을 사상케 하여 대한의 기개를 높였을 분 아니라 중국 국민당의 임정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④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녹두 장군 전봉준(1855~1895)에 대한 설명이다.

32.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에 가 보세요.
②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했던 다산 초당을 추천해요.
③ 퇴계 이황의 학덕을 기리는 도산 서원을 추천해요.
④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를 추천해요.
⑤ 대가야의 위용을 보여주는 지산동 고분군에 가 보세요.

정답: ②

* 전남 강진의 역사

- 고려의 청자는 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생산되고 연료가 풍부한 지역에서 구워졌는데, 전라도 강진과 부안이 유명하였다. 특히, 강진에서는 최고급의 청자를 만들어 개경에 공급하여 왕실과 관청 및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 지눌과 비슷한 시기에 요세(1163~1245)는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백련 결사를 제창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 역시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수선사와 양립하며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끌었다.

-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천주교 박해인 신유박해(1801)에 연루되어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이 때 해남 윤씨 윤규로의 도움으로 초당(다산 초당)에 거주하며 (1808~1818) 목민심서를 비롯한 위대한 실학의 저술이 이루어졌다.

① 율곡 이이(1536~1584)가 유년 시절을 보낸 오죽헌은 강원도 강릉에 소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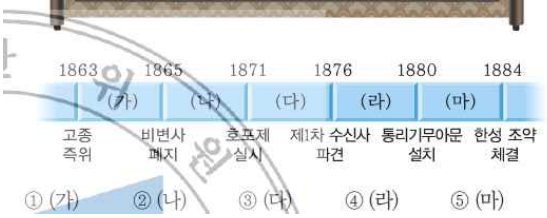
③ 퇴계 이황(1501~1570)을 기리는 도산 서당은 경북 안동에 소재하고 있다.

④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는 경남 합천에 소재하고 있다.

⑤ 대가야의 왕족 고분군인 지산동 고분군은 경북 고령에 소재하고 있다.

33. 다음 상소가 올려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이 몇 가지 문제는 실로 전하께서 어려서 아직 정사를 도맡아 보지 않고 계시던 시기에 생긴 일입니다. …… 지금부터 임금의 권한을 발휘하시고, 침식을 잊을 정도로 생각하시며 부지런히 일하셔야 할 것입니다. …… 친친(親親)*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다만 그 지위를 높이고 녹봉을 후하게 줄 뿐이며, 나라의 정사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
> – 호조 참판 최익현의 상소 –
>
> *친친(親親):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말함.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최익현의 대원군 하야 상소(1873)

가난한 선비 집안의 둘째 아들로 포천에서 태어난 최익현(1833~1906)은 14세 때 아버지의 명에 따라 이항로의 제자로 들어가 병과에 급제하여 이조 전랑까지 역임하였다.

그는 흥선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 발행을 비판한 상소(1868)와, 만동묘를 비롯한 서원 철폐에 반대하고 고종의 친정을 요구한 계유상소(1873)를 올려 대원군 하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뒤이어 집권한 민씨 세력과도 일본과의 수교 문제로 대립하였다.

그리하여 강화도 조약(1876) 때에는 왜양일체론에 입각하여 지부복궐(도끼를 메고 궐에 엎드림)의 5불가 척화 상소를 올렸다. 그는 여기서 일본을 포함한 외래 자본주의의 침략적 본질과 해독성을 날카롭게 간파하였다

63세 되던 해(1895) 최익현은 명성 황후 시해 사건에 반발하였고, 단발령에도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며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을사조약(1905.11)이 체결되자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의병을 지휘하다 체포당하였다. 결국 쓰시마 섬(대마도)으로 유배되었고 단식 끝에 순국하였다.

34.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습니다.
②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 하였습니다.
③ 평양 관민들에 의해 제너럴 셔먼호가 불탔습니다.
④ 외규장각 건물이 불타고 의궤가 약탈당하였습니다.
⑤ 프랑스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을 침입하였습니다.

정답: ①

* 신미양요와 척화비 건립(1871)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이 천주교를 탄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흥선 대원군은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866년부터 6년 동안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병인박해). 이로 인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 여 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는 바로 이 병인박해 때의 자국의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1866년 9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병인양요).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여 한강을 봉쇄하고, 그 중의 한 부대는 강화도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한성근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병인양요 후 오페르트를 비롯한 서양인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1868).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기운이 더욱 거세어졌다.

병인양요에 앞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었다. 이 배에 탄 서양 사람들이 통상을 요구하자, 관리들은 외국과의 통상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잠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 셔먼 호를 불살라버렸다(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8).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이를 신미양요라 한다(1871.6). 프랑스군을 격퇴한 후, 또다른 침입에 대비하여 강화도의 경비를 튼튼히 하고 있던 조선 정부는 이에 맞섰으며,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때 광성보를 점령하였던 미군은 조선 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버티지 못하고 물러갔다(帥자기를 탈취하여 감).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조선 정부는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1871).

35.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대조선국 군주가 어떠한 은혜로운 정치와 법률과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그 상인에게 베풀 경우, 항해나 통상 무역, 상호 왕래 등의 일에서 미국 관리와 국민이 똑같이 혜택을 입도록 한다.

(나) 프랑스국 국민으로서 조선국에 와서 언어 · 문자를 배우거나 가르치며 법률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보호하고 도와줌으로써 양국의 우의를 돈독하게 한다.

① (가) –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 조항을 담았다.
② (가) –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③ (나) – 공사관 경비 명목의 군대 주둔 조항을 두었다.
④ (나) – 프랑스가 천주교 포교 자유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⑤ (가), (나) – 조약 체결 이후 사절단으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정답: ④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과 조불수호통상조약(1886.5)

- 강화도 조약(1876.1) 이후 청은 일본의 독점적인 조선 침투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 청국의 위신을 높이고자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을 집약한 책이 1880년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 도입된 황쭌셴의 <조선책략>이다.

이 <조선책략>은 '친중', '결일', '연미'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책략>은 조선 내에 큰 영향을 미쳐 조선의 대외정책이 개국정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1882.5)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1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 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외 법권(4조), 최혜국 대우(14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후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하여 최초의 굴 사절단인 보빙사를 파견하였다(1883).

- 프랑스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때에 수호조규를 곧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청의 이홍장의 소극적 태도와 천주교 포교 문제로 다른 서구 열강에 비해 비교적 늦은 1886년 5월에 체결되었으며 천주교 포교도 허용되었다(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양국 언어.학문 연구의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인정).

① 강화도 조약(1876.1)의 후속 조치로 체결된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일본화폐 사용(부록),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등이 허용되었다.

② 임오군란(1882.6)을 진압한 청나라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잔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임오군란(1882.6) 때에 일본은 자국 교관이 피살되고 공사관이 습격당한 것을 빌미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의 책임을 물어 사과 사절단의 파견, 주모자 처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을 담은 제물포 조약(1882.7)을 강요 체결하였다.

36.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훈련대가 해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② 포접제가 활용되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③ 청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 청 · 일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개화당이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정답: ③

* 임오군란(1882.6)

개항 후 일본 상인의 대량 수입으로 점차 쌀이 부족해진데다가, 때마침 1882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하층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 갔다.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하여 구식 군인(무위영.장어영)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였다. 심지어 민씨 일파 등 집권층의 부패로 구식 군인에게 13개월 만에 월급으로 지급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 여기에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불만을 품었던 구식 군인들은 마침내 선혜청을 습격하며 임오군란을 일으켰다(1882.6).

구식 군인들은 흥선 대원군을 찾아가 지지를 요청했으며, 정부 고관들의 집을 부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 와중에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 죽었다.

그 후 서울의 하층민들이 가세하여 세력이 더욱 커지자, 구식 군인들은 왕궁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 등 고위 관리들을 처단하였다. 군인들이 궁궐에까지 침입하자 민비는 종적을 감췄고(장호원 피신)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다.

그러나 민씨 일파로부터 군대 파견을 요청받은 청은 일본의 무력 개입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군대를 출동시켜 군란을 진압했으며,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해 갔다.

또한 청은 군대를 주둔시키며,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고문 파견: 마건창, 묄렌도르프)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잔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굴복한 정부는 제물포 조약(1882.8)을 체결하여 사과 사절단의 파견, 주모자 처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 등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① 2차 갑오개혁(1895.1)으로 국왕 경호의 시위대와 기간군대인 훈련대가 설치되었으나, 친일적 박영효가 훈련대를 왕실 경호 임무를 부여하려하자, 고종과 민비는 이를 쿠데타 도모로 간주하고 박영효를 축출하여(1895.7) 친미.친러 내각으로 교체하고 훈련대를 해산코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이용하여 해산 위기의 훈련대를 이용하여 을미사변(1895.10)의 만행을 저질렀다.

② 동학농민운동(1894)은 포접제가 활용되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④, ⑤ 개화당이 일본의 지원을 힘입어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갑신정변(1884.12)은 청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일본도 세력 만회를 위해 톈진조약을 체결하여 양국군의 철수와 공동파병권을 얻어냈다.

37.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가) – 광복 이후 김구의 집무실과 사저로 이용되었다.
② (나) –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 거처를 옮긴 곳이다.
③ (다) – 외교권을 강탈당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다.
④ (라) –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곳이다.
⑤ (마) – 교육 입국 조서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원 양성 학교이다.

정답: ⑤

* 서울 정동 지역의 문화유산 관련 역사

(가) **경교장**: 서울시 종로구 평동에 있는 백범 김구(金九)가 1945년 11월부터 1949년 6월 26(암살된 날)일까지 사용했던 개인 사저이다.

(나) **구 러시아 공관**: 러시아인 사바틴이 착공한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서 1885~1890년에 걸쳐져 완공되었다. 고종의 아관파천(1896.2~1897.2)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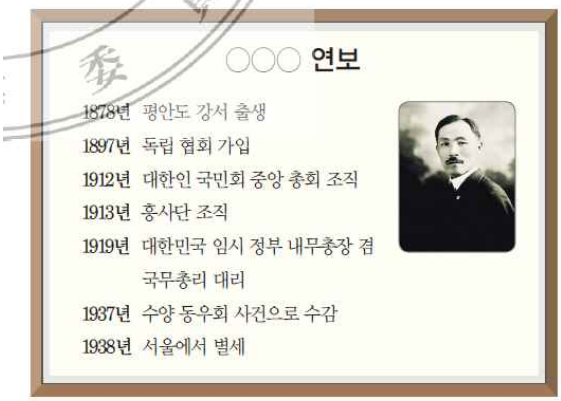
(다) **중명전**: 1904년 덕수궁이 불타자 고종의 집무실인 편전이자 외국사절 알현실로 사용되었다. 중명전의 처음 이름은 수옥헌(漱玉軒)이며, 후에 을사조약(1905.11)이 체결되었던 비운의 장소이다. :

(라) **덕수궁 석조전**: 최초의 근대 서양식 건물로서 기둥 윗부분은 이오니아식, 실내는 로코코풍으로 장식한 서양식 건축기법이 특이하다. 18세기 신고전주의 유럽 궁전건축양식을 따른 것으로 당시 건축된 서양식 건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다. 이곳에서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며, 6·25전쟁 이후 1986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마) **배재학당** (동관):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1885년)한국 최초의 근대 사립 중등학교이자 서양식 학교 건물. 1916년에 세워졌는데 처음 지었을 때의 원형이 대체로 남아 있고 건물의 형태가 우수하여 1910년대 한국 근대 건축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 된다

⑤ 고종의 교육입국조서(1895.2)에 따라 세워진 교원 양성학교는 한성사범학교(1895.4)이다

38.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가갸날을 제정하고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였다.
②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③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여 여유당전서를 간행하였다.
④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였다.
⑤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을 하였다.

정답: ②

* 도산 안창호(1878~1936)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실력양성(무실역행)을 주창한 대표적 독립 운동가로 1899년 점진학교를 세워 교육 운동을 하던 중,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가 신지식을 배웠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이듬해 귀국해 1907년 양기탁 등과 함께 비밀 조직인 신민회를 결성을 주도하고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다.

일제의 강제 합병 이후 신민회가 해산되자, 미국으로 건너가 1912년 통합교민조직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1913년에는 흥사단을 창설해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 3·1 운동 이후에는 상하이 임시 정부에 참여하였다(내무총장).

그러나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론 대 개조론 논쟁에서 개조론의 입장이었으나, 임시정부가 여러 파벌로 갈리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1926년 다시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 진영의 단결을 적극 호소하여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창립되었다(1926).

그러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1932)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붙잡혀 2년 6개월간 복역한 후 출소했다. 그 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하였다.

그는 독립을 위해 무장 투쟁보다는 민족의 교육을 강조했는데, 이를 토대로 '민족 개조론'을 주창하였는데 일본을 본받아 힘을 기르고 자치론을 주장하는 이광수 등의 타협적 민족주의와는 다르다.

① 3·1 운동 이후 임경재(1876~1955), 장지영 등이 조선어 연구회를 창립하였다(1921). 이들은 한글 연구와 더불어 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노력하였다. 또, 한글 기념일인 '가갸날'(1926)을 제정하여 우리말 쓰기를 권장하였고, '한글'(1927)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한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③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전개한 민족문화 수호운동. 과거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국수적.낭만적이었음을 비판하고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사상과 우리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④ 유길준(1856~1914)은 구한말의 개화 운동가이자 최초의 국비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였다. 귀국 후 7년간 감금되어 <서유견문>을 집필하였고, 한일합방 후 국민교육과 계몽사업에 헌신하였다.

⑤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1880~1936)는 독사신론(1908)을 저술하여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39.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11월 15일 고종은 비로소 머리를 깎고 내외 신민에게 명하여 모두 깎도록 하였다. …… 궁성 주위에 대포를 설치한 후 머리를 깎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선언하니 고종이 긴 한숨을 내쉬며 정병하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경이 짐의 머리를 깎는 게 좋겠소."라고 하였다.

–「매천야록」–

(나) 지금 너희 대사와 공사가 병력을 이끌고 와 대궐을 포위하여 참정 대신을 감금하고 외부 대신을 협박해서, 법도와 절차도 갖추지 않고 강제로 조인하게 하여 억지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았으니, 이것은 공법을 어기어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다.

–「매천야록」–

①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가 조직되었다.
②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③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④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부대가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⑤ 해산된 진위대 군인들이 합류하여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정답: ④

* 단발령(1895.11)과 을사조약(1905.11) 사이의 역사적 사실

일본의 침략에 맞선 강력한 저항은 의병 활동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의병은 을미사변(1895.10)과 단발령(1895.11)을 계기로 시작된 을미의병(1895~1896)이었다. 유인석(1842~1915, 제천), 이소응(춘천) 등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하고 농민들이 가담한 을미의병은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이 내려지자 대부분 스스로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활빈당에 가담하여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이어나갔다.

의병 항쟁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조약(1905.11)을 전후하여 다시 일어났다(1905~1906, 을사의병). 이 때 현직 관리인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하며 기폭제가 되었다. 전직 관리 출신인 민종식(1861~1917)은 충청도 홍성 일대를 무대로 전과를 올렸으며, 흥선 대원군 하야 상소와 개항 반대 상소로 유명한 최익현(1833~1906)은 전라도 태인에서 임병찬 등의 제자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서 순절하였다. 특히 경상도 일월산을 거점으로 활동한 신돌석(1878~1908)은 최초의 평민 의병장으로서 3천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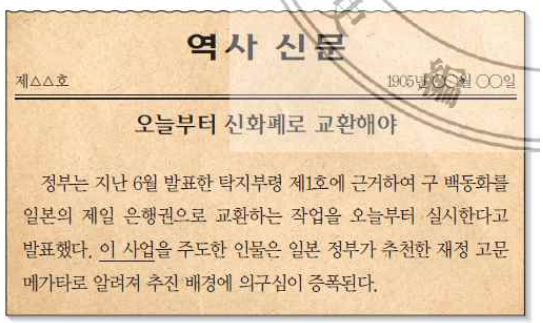
헤이그 특사 사건(1907.7)으로 인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인하여 정미의병(1907~1908)이 일어났다.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여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어 단순한 의병운동이 아닌 조직적인 의병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3도의 의병이 총 합류하여(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통보하고 서울로 단번에 진공하는 서울진공작전(1908)을 추진하였으나 지도부의 문제(부친상을 당한 총대장 이인영의 낙향과 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로 실패하였다.

①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1851~1916)은 쓰시마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전국 곳곳의 의병장과 유생들을 모아 비밀결사인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1912).

이 단체는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 국권을 회복한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총리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4.5).

40. 밑줄 그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역사 신문

제△△호 1905년 ○○월 ○○일

오늘부터 신화폐로 교환해야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탁지부령 제1호에 근거하여 구 백동화를 일본의 제일 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인물은 일본 정부가 추천한 재정 고문 메가타로 알려져 추진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된다.

〈보 기〉

ㄱ. 화폐 주조를 위해 전환국이 설립되었다.
ㄴ. 통화량이 줄어들어 국내 상인들이 타격을 입었다.
ㄷ. 황국 중앙 총상회가 중심이 되어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ㄹ. 일본에서 차관이 도입되어 정부의 재정 예속화를 심화시켰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화폐정리사업(1905~1909)

러·일 전쟁(1904~1905) 중 일제는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고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앉혔다. 메가타는 재정 정리 사업과 화폐 정리 사업(1905~1909)을 추진하여 황실 재정을 해체하고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였다.

화폐 정리 사업은 은화·적동화·백동화·엽전 등 모든 화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역시 중점이 두어졌던 것은 백동화였다. 백동화는 주조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화폐가치가 불안정하여 경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동화의 교환은 제일은행에서 담당하고 백동화를 갑·을·병종으로 구분하여 갑종은 법정 교환율인 2전 5리로 교환해 주며, 을종은 1전으로 교환해 주거나 교환을 원치 않을 경우 화폐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 돌려주고, 병종은 아예 교환해 주지 않기로 하였다.

그 결과 유통 화폐의 부족 현상으로 국내 상공업자들과 민간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일본 상인들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여 많은 이익을 챙겼다. 또한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 차관으로 조달하여 대한 제국은 거액의 국채를 떠안게 되어 재정 예속화가 심화되었다.

㉠ 개항 이후 민씨 정권은 개화 정책 추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상시적인 주전을 위해 전환국(錢圜局)을 설치하였다(1883).

㉡ 개항 이후 조청수륙무역장정(1882)의 체결로 청.일 등 외국 상인들이 침투해 오자 서울 도성의 시전상인들은 이에 맞서 1890년 철시 투쟁을 벌였으며, 황국 중앙 총상회(1898.9) 등을 조직하여 상권 수호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41. 다음 자료의 전투에 참여한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대전자령의 공격은 이천만 대한 인민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 수천 수만의 영혼이 보우하여 주는 피의 사자이니 제군은 단군의 아들로 굳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만대 자손을 위하여 최후까지 싸우라.
>
> – 지청천, 1933년 중국 대전자령 전투에 앞서서 –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직할 부대로 창설되었다.
②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③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④ 중국 호로군과 연합 작전을 통해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다.
⑤ 러시아에 의해 무장 해제를 당하여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정답: ④

* 지청천이 이끈 한국독립군

일제가 만주 사변(1931)을 일으키고, 이듬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1932)하여 만주 일대를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독립군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서간도 지역에서 국민부를 모태로 1929년 설립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조선 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이 살해당하고, 간부들이 체포, 처형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북만주에서 1931년 결성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1888~1957)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구국군 또는 호로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후 전리품 문제와 만주에서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중국군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김구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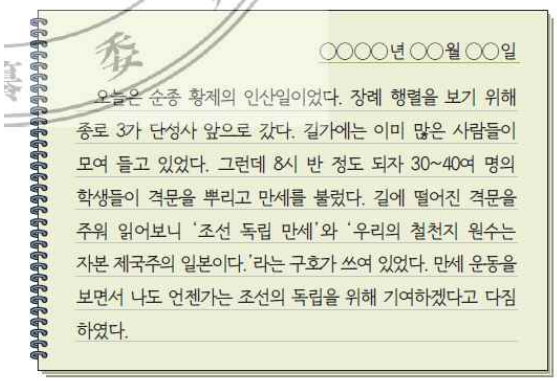
① 임정 산하의 정식 직할 부대로 1940년 9월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②, ③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은 이러한 개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1925년 몸소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하였다. 이 학교에 포진된 공산주의 교수진의 영향을 받아 점차 김원봉과 의열단 지도부는 이후 노선을 바꿔 조선혁명간부학교(1932)를 세워 훈련시키고, 정당 조직(후일 1935년 7월 민족혁명당 결성)과 군사 조직(조선 의용대 결성) 형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10).

⑤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활약하던 북간도 지역의 제 독립군들은 그해 말의 간도참변으로 인하여 만.소 접경지역인 밀산부에서 모여 북로군정서의 주도 아래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다(1920.12). 총재에 서일, 부총재에 김좌진·홍범도·조성환, 총사령에 김규식), 참모총장에 이동녕, 여단장에 지청천을 임명하여 창설하고 이듬해 연해주 자유시로 근거지를 옮겨갔으나 독립군의 지휘권을 놓고 이르쿠츠파와 상해파 공산당 간의 갈등 속에 자유시 참변(1921년 6월, 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되는 과정에다수가 참살됨)을 겪었다.

42. 다음 가상 일기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년 ○○월 ○○일

오늘은 순종 황제의 인산일이었다. 장례 행렬을 보기 위해 종로 3가 단성사 앞으로 갔다. 길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었다. 그런데 8시 반 정도 되자 30~40여 명의 학생들이 격문을 뿌리고 만세를 불렀다. 길에 떨어진 격문을 주워 읽어보니 '조선 독립 만세'와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라는 구호가 쓰여 있었다. 만세 운동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다짐하였다.

① 신간회의 지원 속에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②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되는 배경이 되었다.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④ 한 · 일 학생 사이의 충돌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⑤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답: ⑤

* 6.10 만세운동(1926)

3.1 운동(1919) 이후 192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가 국내에 본격화되고 학생들의 의식의 커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자와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1926).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러나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순종의 국장일인 6월 10일, 학생들은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 곳곳의 학생들도 동맹 휴학 투쟁을 벌여 호응하였다.

6·10 만세운동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일제 타도를 위한 구체적 실천 노선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당시 격문에는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마라!' 등 민중이 실천해야 할 경제투쟁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 등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등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①, ⑤ 1929년 11월, 전남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일본 남학생의 한국 여학생 희롱)을 계기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신간회의 지원 속에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②, ③ 3·1 운동(1919)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항일무장 투쟁, 사회주의와 여성 운동 등 다방면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 운동(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큰 자극이 되었다. 또한 일제의 통치방식을 기만적이긴 하지만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다.

43.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 제1조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① 한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었다.
②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령이 발표되었다.
③ 식민지 교육 방침을 규정한 제1차 조선 교육령이 시행되었다.
④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고자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⑤ 독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공포되었다.

정답: ⑤

* 치안유지법 제정(1925) 이후의 일제의 정책

1920년대 들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자 일제는 본국과 식민지 전체에 적용되는 천황 통치체제 및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로 치안유지법(1925~1945)을 제정하여 독립운동과 사회주의를 탄압(사상 전향을 강요)하였다.

① 한일병합(1910.8) 직후 일제는 전국 곳곳에 배치된 헌병과 경찰을 통해 한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했으며, 즉결 처분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태형 등의 형벌을 가할 수도 있었다. 특히 조선 태형령(1912)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로 1920년 폐지되었다.

② 1910년대 일제는 회사령(1910~1920)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 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자유스러운 민족기업 설립을 방해.억제하였다.

③ 제 1차 조선 교육령(1911~1922): 우민화 교육을 목표로 하여 고등교육(대학)을 금지하고 학교를 보통.실업.전문학교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차별 교육으로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이 4년(일본 6년)이었다.

④ 일제는 정확한 측량을 바탕으로 지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소유권을 확정하여 토지의 매매와 양도를 원활하게 하며 토지의 개량과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1910~1918)

그러나 실제 토지 조사 사업은 소유권 미확인 토지나 은결을 파악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⑤ 일제는 치안유지법 제정 이후에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과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를 공포하여 한국인 사상범을 사전에 탄압하였다

44. (가)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는 1860년대에 함경도 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신한촌이 건설되었다.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된 1937년에는 이 지역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① 서전서숙이 설립되어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② 신한 청년당이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③ 대한 광복군 정부가 세워져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였다.
④ 대조선 국민 군단이 조직되어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였다.
⑤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정답: ③

*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러시아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聲鳴會)가 설립되었으나 동년 9월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1911년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기관지로 권업신문을 발간하였으나, 이 역시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이상설, 이동휘 등은 1914년 대한 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 활동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꺼린 러시아가 독립군의 무장 활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은 어려웠다.

이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연해주에서는 전로한족대표자회의(1917)가 설립되어 한인 신보 등을 간행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3·1 운동 직후 임시 정부 형태의 대한 국민 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한편, 이동휘 등에 의해 한인 사회당(1918)이 조직되어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① 용정촌, 명동촌이 소재한 북간도 지역에는 간민회, 중광단(대종교) 등의 자치단체와 서전서숙(이상설), 명동 학교(김약연) 등의 민족학교가 세워져 철저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② 1918년 여운형, 김규식 등에 의해 신한청년당이 창설되어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등 임시정부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1914년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으나,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승만이 군사활동보다 외교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데다 박용만이 실전에 참가하기 위해 극동지역으로 떠나면서 조직 유지가 어려워져 결국 해체되었다(1917).

⑤ 일본으로 유학, 취업 등 목적으로 청년들이 이주하였으며, 1919년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어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45.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첫째는 제국의 대륙 병참 기지로서 조선의 사명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겠다. 이번 전쟁에서 조선은 대 중국 작전군에게 식량, 잡화 등 상당량의 군수 물자를 공출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직 불충분하다. …… 대륙의 일본군에게 일본 내지로부터 해상 수송이 차단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선의 힘만으로 이것을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 산업 분야를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군수 공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 모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 미나미 총독 연설 –

① 헌병 경찰에게 벌금형을 부과받는 농민
② 신간회 창립 대회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
③ 국채 보상 운동의 모금에 참여하고 있는 상인
④ 조선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 발족에 참석하는 교사
⑤ 국민 징용령에 의해 강제 노동에 끌려가는 청년

정답: ⑤

*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 천명(1938)과 총동원 체제

일제는 중일전쟁(193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병참기지화 정책을 천명하고, 국가 총동원령를 선포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조선민사령 개정,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인적수탈로는 강제 징용(1939년 제정, 1944년 전면 실시)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육군 특별) 지원병(1938),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을 통해서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숟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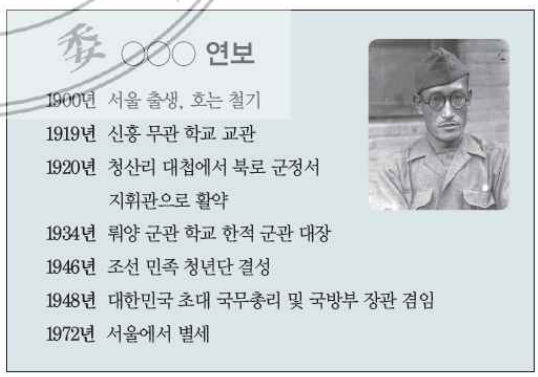
① 헌병경찰 통치와 즉결처분은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 볼 수 있는 모습니다.

② 좌우합작단체인 신간회는 1927년 창립되었다.

③ 나라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도에 있었다.

④ 한국인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을 세우자는 민립대학설립운동은 이상재 등이 1922년 민립대학 기성준비회를 결성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46.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② 국권 피탈에 앞장섰던 이완용을 저격하였다.
③ 의열단을 결성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④ 한국 광복군 지휘관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⑤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정답: ④

* 철기 이범석(1900~1972)

이범석은 약관의 나이에 북로군정서의 중대장으로 청산리 대첩(1920.10)에 참가하여 이름을 떨쳤다.

임정이 충칭에 정착한 직후 창립한 한국광복군의 2지대장과 참모장을 역임하고, 3지대장 김학규와 함께 국내진공작전을 위한 정진군을 이끌었으나, 일본의 예상보다 이른 항복으로 무산되었다.

이후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① 의열단 단원 나석주(1892~1926)는 일제의 착취 기관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1926).

② 이재명(1886~1910) 열사는 을사조약의 원흉 이완용을 칼로 저격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실패하였다(1909.12).

③ 약산 김원봉(1898~1957)은 1919년 길림에서 의열단을 창설하여, 1920년대에 김익상, 나석주, 김상옥 등이 일제 요인을 암살하고 기관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⑤ 민족주의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은 의열단의 강령이 되는 조선혁명선언(1923)을 집필하여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였다.

47.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 .....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 .....

① 반국가 활동 규제를 위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
②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③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다.
④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활동하였다.
⑤ 자립 경제 구축을 위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정답: ⑤

* 제헌 헌법 시기(1948.7~1952.7)의 역사적 사실

1948년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5·10 총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7월 17일 제헌헌법이 만들어졌다.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가 특징이고, 3선은 불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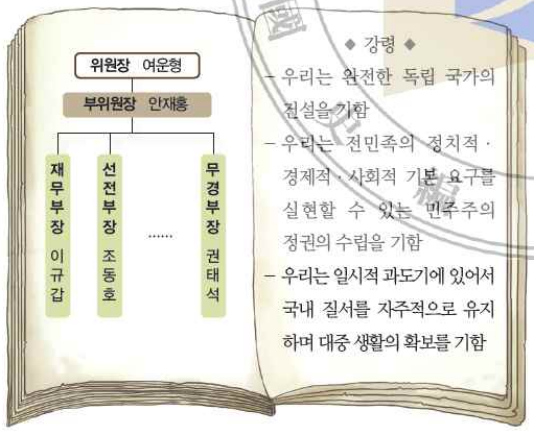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1948.9), 반민특위가 활동하였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고(1949.8),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하여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1950.3~1957)으로 인해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① 제헌국회는 1948년 12월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실제 목적은 좌익 탄압의 성격이 강하다.

③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의 기관으로, 토지 및 재산(공장)을 관리하던 기관인 신한공사(1946.10 설립)의 자산을, 농지는 농지개혁법(1949.6)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1949.12)으로 민간인 연고자에 분배하였다. 그러나 불하 과정에서 많은 부정과 정격유착이 있었다.

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정기 기간인 1962년부터 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48. 다음 자료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조선 건국 동맹 세력을 바탕으로 조직되었다.
ㄴ. 치안대를 조직하여 질서 유지 활동을 하였다.
ㄷ.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반대하였다.
ㄹ. 미 군정의 후원을 받아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1945 8.15~9.7)

일제가 항복하기 직전, 조선건국동맹(1944)의 여운형(1886~1947)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이양받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1945.8.15.).

이 위원회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국내 질서의 자주적 유지, 대중 생활의 확보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고, 8월 말까지 전국에 145개에 이르는 지부를 결성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질서를 유지하였다(친일파를 제외한 좌우연합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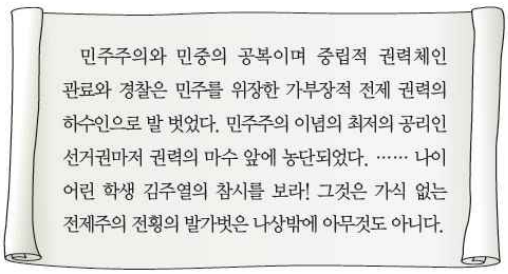
여기에는 민족주의 세력의 안재홍 등도 참가하였으나 좌익 세력이 건국 준비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곧 이탈하였고, 미 군정이 들어서기 전 정부 형태를 보여주고자 조선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1945.9.6)했으나 우익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해체되었다(9.7).

또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는데, 미군은 직접통치를 표방하며 건준위와 인공의 승인을 거절하였다.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에 열렸고, 건준위는 이미 동년 9월 7일에 해체되었다.

㉣ 중도 좌익의 여운형과 중도 우익의 김규식이 이끈 좌우 합작운동은 미 군정의 지원을 받아 좌우합작위원회(1946.7~1947.10)를 통해 전개되었다.

49.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 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시를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제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① 허정 과도 정부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
②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③ 4 · 13 호헌 조치에 국민들이 저항하며 시작되었다.
④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⑤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 · 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정답: ①

* 4.19 시민 혁명 (1960)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1960년 3.15 부정선거(마산의 김주열 학생 희생)를 원인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4.19 시민혁명이 발발하였다. 4월 25일 교수들의 시위가 있자 4월 26일 이승만은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였고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허정 과도정부는 부정선거를 계획한 정부 각료와 자유당 간부를 구속하였다. 국회는 6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7월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②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다.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석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5.18 만주화 운동).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시가전을 벌였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살상되며 5월 27일 진압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③, 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사망사건과 4·13 호헌조치(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유치 등을 빌미로 당시 대통령 간선제 고수 및 개헌 논의 금지)를 계기로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50. (가)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① 한 · 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② 중국, 소련 등과 수교하였다.
③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④ 한 · 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정답: ③

*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정권기(1998.2~2003.2)의 역사적 사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1998.6) 등의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김대중-김정일)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이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앞으로 이 방향에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의선 복구 사업(2000~2002), 개성 공단 건설(2000년 합의, 2004년부터 입주),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①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회담 진행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지나치게 양보한 굴욕적인 외교라며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1964년 6·3 시위). 정부는 비상계엄을 실시하여 이를 억제하고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② 노태우 정권기(1988.2~1993.2)인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공산권과 수교)이 추진되어 1990년 한소 수교를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④ 휴전을 반대하던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정 체결(1953.7)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협조하고 대항한다는 내용의 굳건한 방위조약으로,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⑤ 김영삼 정부(1993.2~1998.2)는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1996)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다.